



Synopsis

어느 종군기자의 이야기 by
Marguerite Higgins

신원대

기획의도



-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지만, 전 세계에서 약 300명이 종군 기자들이 한국전쟁을 취재하러 왔으며, 그들 중에서도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단, 두 명의 여기자들도 한국전쟁을 취재하였다. 한 명은 한국전쟁 취재로 세계 최초 여성 풀리처상을 수상한 Maguerite Higgins이고, 또 다른 한 명은 세계 최초 여성 종군기자였던 Margaret Bourke-White. 한국전쟁동안 17명의 해외 종군 기자들과 한 명의 한국인 기자가 사망했다.
- 195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전쟁이라는 극한적 상황에서, 한 명의 외국 여성 종군기자가 어떤 어려움들을 뚫고 어떻게 한국전쟁을 취재하였는지, 그 여성 종군 기자의 시선과 동선에 맞추어 한국전쟁의 주요 사건들을 보여준다.
- 한국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를 영상과 특히 종군기자들의 사진으로, 현재 시대의 한국인과 세계인들에게 공유하고 공감을 갖도록 한다. 종군기자들이 남긴 전쟁에 대한 기록들은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
- 한국전쟁의 시작_6.25 발발한 날부터 끝_종전협정이 이루어진 날까지 다루며, 주요 사건들과 한국의 사계를 담아낸다.
- 한국전쟁은 과연 무엇이었고, 그리고 현재 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하는지 보여준다.
- 본 영화를 파생으로 10부작 미니 시리즈와 한국전쟁의 다큐멘터리 (기록과 재현)를 제작을 고려한다 (제작비 절감요소)

Sequences

- 프롤로그
- 전쟁의 서막과 취재의 시작
- SQ1. 도착, Good bye Seoul_1950년 6월 27일
 - 비행기안-> 공항->피난민 행렬->채병덕 장군 및 미군 수뇌부 만남 그리고 오판-> 신재민 만남->새벽 서울탈출 (6월 28일 새벽 2시)
- SQ2. 오산 죽미령 전투_1950년 7월 5일
 - 후퇴하는 한국군->붕괴되는 미군 선발대-> 사실보도로 강제 추방
- SQ3. 낙동강 전투_1950년 8월
 - 귀환->처절한 전투-> 어린소녀 (6세) 구출
- SQ4. 상처_부산 피난민촌_1950년 9월 초
 - 부산의 피난민의 모습-> 고아원->만남
- SQ5. 인천상륙작전_1950년 9월 15일
 - 한국해병과 의외의 상륙작전-> 서울로 진군, 그러나 저격-> 평양에 다다르는 길
- SQ6. 장진호 전투_1950년 11월 27일
 - 서부전선에서 괴부대에 의한 한국 소대 전멸->통일에 대한 희망, 그리고 추수감사절 식사-> 중공군 참전 확인->처절한 전투와 비참한 후퇴-> 흥남 철수 그리고, 문재인 대통령가족
- SQ7. 빨치산 토벌_1951년 4월 초_호남 지리산일대
 - 빨치산 내부 첩자-> 빨치산의 공격-> 우익의 복수-> 죄없는 민간인들의 죽음
- SQ8. 암살과 정전 협정_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신, 그리고 밤 10시 실효
 - 전쟁의 상흔과 희망, 혼란
 - Everready operation (이승만 암살계획) 와 정전협정에 대한 사보타지. 그러나 이승만의 생존과 정전협정.
- 에필로그
 - 지속되는 전쟁과 취재

작품의 특징

- 외국 여성 종군기자의 시선과 동선에 맞추어 한국전쟁의 주요 사건들을 보여준다
 - 서구인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한국전쟁
 - 여성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한국전쟁
- 종군기자의 시선에 따라 전개 되는 이야기
 - 세미 다큐형식을 띤다
 - 영상에 유명한 실제 사진들을 제현하여 보여준다.
- 한국전쟁의 실상과 그 당시 상황들을 극사실주의에 입각해 표현한다.
 - 전투에 대한 사실적 묘사 및 극한적 상황들
 - 유엔 마담과 전쟁 고아들에 대한 묘사.
- 한국전쟁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에 대해 극화 한다.
 - 예) 한국군 장성들 및 미군 장성들의 무능함이나 오판, 한강 인도교 폭파 명령자 (제임스 하우스만 대위), Everready plan (미군에 의해 추진 된 이승만 대통령 제거 계획) 등.
-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(2020년 상영) 또는 정전 70주년 (2023년 상영) 목표로 한다

여성 종군 기자의 한국전쟁

- 여성 – 기존의 모든 전쟁 영화에서 극의 주체는 남성이었고, 여성은 조연이거나 피해자 역할이었다.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조연이거나 피해자가 아닌 여성, 특히 1950년대의 여성으로써, 이 전쟁 영화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인물이다.
- 종군기자 – 기존의 한국 전쟁영화는 거의 한국인들의 눈으로만 시각화되었지만, 여기서는 외국 종군기자의 눈으로 한국과 한국전쟁에 대한 영화
- 한국전쟁 – 비록 한국에서도 잊혀져 가는 전쟁이지만, 외국인들도 알고 싶어하고 젊은 세대도 알아야 할 가장 한국적인 소재
- 전쟁 – 국경을 초월한 가장 보편적인 소재중의 하나.

등장인물

- 마거릿 히긴스 (30세); 여성기자, 한국전쟁으로 풀리쳐상 수상
- 호머 비가트 (40대 중반); 같은 신문사 기자, 히긴스를 싫어함
- 신재민 소위 (22세); 초급 한국 통역 및 정보장교, 영문과 학생 말기에 전투중 다리 한쪽을 잃고. 히긴스가 떠나고 소녀를 딸처럼 키움
- 이금화 (6세); 히긴스가 구출한 소녀.

마거릿 히긴스

- 미국인
-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의 아리따운 30세 여인
- 직업정신이 투철하고, 외모와 달리, 기존의 여성관을 극복하려는 종군기자
- 반공주의자
- 남성들과의 관계
 - 동료인 호머 기자와 취재 경쟁 (모짜르트 vs. 살리에르)
 - 군지휘부들과는 관계가 안좋고, 일반 사병들과는 관계가 좋음